

요 약

제1장 서론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을 위한 2차 연구로서 직종 및 임금 격차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즉, 건설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직종을 기준으로 본 조사에 포함된 직종과 품셈의 직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실제 지불 임금과 조사 및 발표되는 임금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범위

- 연구 대상 : 건설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직종과 임금
- 연구 내용 : 실제 투입되는 직종의 파악, 현장의 직종과 조사 직종의 차이 조정, 현장의 임금과 조사 임금의 차이 조정 등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과제 설정

○ 선행 연구의 개선 방안 요약 및 향후 과제 제시

- 표집, 조사표 구성 및 항목, 조사 실시 및 정보 입력, 분석·공표·활용 등에 관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음.
- 한편, 향후에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서 조사 직종의 단순화, 직종 내 숙련 수준의 반영 검토, 동일 직종의 공종별 구분 검토, 공사 원가에 실제 임금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분석 틀 설정

- 직종 차이 : 임금 실태 조사와 품셈, 그리고 현장 간의 당해 직종 유무에 따

라 직종이 신설되거나 삭제됨. 기존의 여러 직종이 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어 활용될 경우에는 조사 직종을 재분류하여 기존 직종은 삭제하고 신규 직종은 신설하게 됨.

- 임금 차이 : 주로 숙련도별, 지역별, 공종별 차이에 따라 격차를 분석하고 그 정도와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정 지수를 도입하거나 직종을 신설 또는 삭제하게 됨. 숙련도별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경우 기존 직종 중 숙련 수준을 표시하는 직종은 삭제하고 대신 보정 지수를 적용하여 당해 직종의 임금을 활용함.

제3장 실태 분석

○ 임금 실태 조사와 품셈 간 직종 비교

- 임금 실태 조사에는 있으나 품셈에는 없는 직종 : 건출공, 노즐공, 동발공(터널), 목조각공, 배관공(수도), 보안공 등 26개

○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2008. 5) 원자료 분석

- 직종의 구분 및 통합 검토 : 도장공 등 15개 직종
- 유사 직종 간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직종 : 기계설치공 및 기계공 등
- 특성별 임금 격차 : 전체 직종, 형틀목공, 보통인부 모두에서 공종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전체 직종의 경우 ‘공종별 > 지역별 > 규모별 > 발주자별’ 순임. 지역별 임금의 경우 대전이 높고 울산이 낮은 경향을 띠고, 규모별 임금은 100억원 미만 현장이 높고 100억원 이상 현장이 낮은 경향을 띰.

○ 2008년 면담 조사 주요 내용 : 직종 및 임금 격차 중심

- 전문건설공사 현장 : 현재는 모두 형틀목공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스템 해체공과 시스템 해체 틀 정리공이 구분되어야 함. 시스템 동발이공도 별도의 직종이 명시되어야 함. 한편, 미장공과 바닥미장공의 분리가 필요함.

- 전기공사 현장 : 케이블공은 전압으로 구별하는 것보다 송전 케이블과 배전 케이블로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 현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임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작업 시간 8시간 기준이 아닌 단시간 내에 작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단가 면에서 손해를 봄.
- 원자력공사 : 원자력 부분의 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상급원자력기술자 등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임.
- 문화재공사 현장 : 한식석공과 한식석공조공을 구분하여 추가해야 함. 석공의 최고 숙련도를 지닌 '도석수' 직종도 추가해야 함.

○ 2008년 설문 조사 분석

- 현장 임금의 반영 정도 : 현행 '시중 노임단가'에 대해 '발표 횡수는 적정하나, 현장 임금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많음. '현장 임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발표 횡수도 적당하다'는 응답이 23.0%를 차지하는 데 비해 '현장 임금 반영이 미흡하고, 발표 횡수도 부족하다'는 응답은 6.6%임.
- 직종과 임금 수준 반영 여부 : '직종 수는 적정하나 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69.6%로 가장 많음.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14.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차이가 있다'는 응답도 12.8%를 차지해 유사한 비중을 보임.
- 실제 지급 임금과 임금 실태 조사의 임금 간 차이 발생 원인 : '동일 직종의 숙련도별 임금 차이 미반영'이 34.3%로 가장 많음. '동일 직종의 공종별 임금 차이 미반영'과 '동일 직종의 지역별 임금 차이 미반영'이 18.0%로 동일하게 나타남.
-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68개 직종이 시중 노임단가와 현장의 실제 지불임금 간에 격차가 크다고 응답하였음.

제4장 개선 방안

○ 직종의 삭제·신설·조정

- 삭제 직종 검토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는 있으나 품셈에는 없는 직종 : 견출공, 노즐공, 동발공(터널), 보안공, 상급원자력기술자, 시공측량사, 시공측량사조수, 용접공(철도), 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측부, 판넬조립공, 플랜트특수용접공 등 삭제

·직종 통합 : 광통신설치사, 기계설치공, 준설선기관장, 줄눈공, 치장벽돌공, 포설공, 특수비계공, H/W설치사, CPU 시험사 등 9개의 직종 삭제

·활용 미흡 : 현도사, 벽돌(블럭)제작공, 원자력제관공 등 3개 직종 삭제

·직종 재분류 : 저압케이블공, 고압케이블공, 특고압케이블공 삭제

- 직종 신설

·직무 신설 : 바닥미장공, 시스템비계공, 콘크리트커팅공 등 신설

·명칭 신설 : 원자력중기운전원

·직무 세분 : 도장공(고소외벽), 도장공(철탑), 용접공(상수도), 용접공(특수), 철골공(경량) 등 5개 직종 신설

·직종 재분류 : 배전케이블공, 송전케이블공 등 신설

- 결과 : 29개의 직종이 감소되어 현행 145개에서 116개로 조사 직종이 축소됨. 45개의 직종이 삭제되고, 16개의 직종은 신설되며, 26개의 직종은 조정이 필요함.

○ 특성별 임금 격차 반영

- 숙련도 보정 지수 도입 : 각 직종별로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숙련도간 임금 격차를 표준화한 지수를 도입함.

·숙련도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경우 직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작업 반장이나 조공 또는 각 직종의 숙련 수준을 의미하는 명칭을 포함한 직종은 삭제

해야 함. : 건설기계운전조수, 건설기계조장, 고급선원, 도편수, 상급원자력 기술자, 선부, 시험관련기능사, 시험관련기사, 중급원자력기술자, 작업반장, 전기공사기사, 조력공, 조립인부,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통신관련기능사, 통신관련기사,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한식목공조공, 한식와공조공 등 20 개 직종 삭제

- 지역별 보정 지수 도입 : 각 시기마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하는 17개 지역의 보정 지수를 산정하여 시중 노임단가와 함께 공표하고 활용하도록 함. 다만, 해당 지역에만 존재하는 특유 직종에 대해서는 지역별 보정 지수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시중 노임단가 적용 방법 : 보정 지수 적용
 - 현행 방식 : 당해 직종의 노무량 × 당해 직종의 시중 노임단가
 - 개선 방안 : 당해 직종의 노무량 ×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기준단가 × (1 ± 숙련도별 보정 지수/100 ± 지역별 보정 지수/100)

○ 단계별 접근 방안

- 1단계 : 품셈의 변경 없이 조사 방법의 변경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
 - 조사 단계 : 직종을 숙련도별로 세분(상급, 중급, 하급 등)하여 조사 실시
 - 보정 지수 산정 단계 : 숙련도별 보정 지수와 지역별 보정 지수 산정
 - 발표 단계 : 직종별 기준 임금(중급 기준)과 함께 보정 지수,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문 발표
 - 활용 단계 : 품셈 직종에 적용하는 활용 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계상
- 2단계 : 품셈의 변경을 전제로 시행 가능한 사항
 - 임금 실태 조사에서 신설된 직종이 품셈에서도 신설되어야만 활용 가능

○ 조사기관별 설문지 배포 부수 조정 검토

- 현행 30억원 원도급 공사 건수의 구성비와 유사한 배포 부수 비율을 5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 건수와 유사하게 배포 부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전체 설문 조사 부수를 1,700부에서 2,000부로 늘려 비율을 산정함. 현행 방식에 비해 중소 규모 현장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정책적 시사점

- 수주 생산의 특성을 지니는 건설산업의 경우 발주 금액의 기준이 되는 ‘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움.
- 임금 실태 조사 직종 및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현장에서 고의로 임금을 낮추어 적거나 또는 저가 낙찰로 인해 불가피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임금 실태 조사에 낮은 임금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결국 발주 금액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장의 임금이 임금 실태 조사에 반영되도록 개선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노무비의 하락을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임.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노무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한계임. 품셈의 직종 신설 및 조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품셈에서도 숙련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한 조사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했음. 전산 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직종별 또는 숙련 수준별로 전체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

도하지 못했음. 적어도 매 5년마다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직종 및 임금의 대표성과 현장성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